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끄트머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끄트머리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끄트머리

완성된 이름

끄트머리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끄트머리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끝이 되는 부분.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췌트머리	-	-	-
스트머리	-	-	-
끄트머리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끝이 되는 부분.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꼬트머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끝이 되는 부분.

☞ 꼬트머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꼬트머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쑏트머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쓰트머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꼬트머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쑏트머리
19세기20세기
- 쓰트머리
20세기
- 꼬트머리
20세기현재

↳ 꼬트머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재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꼬트머리’의 옛말인 ‘쑈트머리’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쑈트머리’는 끝을 뜻하는 ‘쑈트’와 접미사 ‘-머리’가 결합한 것인데, ‘-머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쑈트’은 20세기에 ‘꼰’으로 나타나는데 ‘쑈트머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어 20세기에 ‘꼬트머리’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에 나타나는 ‘쑈트머리’는 ‘꼰’을 ‘쌀’으로 적던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 문헌 속의 꼬트머리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쑈트머리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쑈트머리

출처 1896 국한회어 곤:48

용례 01

66 문헌 용례

췁트머리 [端緒]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245

용례 02

66 문헌 용례

췁트머리.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췁트머리, 췁트머리, 꼬트머리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췁트머리, 췁트머리, 꼬트머리

출처 1911 죽서루 4:5

용례 03

66 문헌 용례

원테 점주느신 량반스딕에서 후는 일은 처쇼췁지도 초마 췁트머리 흰후게 여러 제친 데서 후지 안코 콕 막켜 광선의 비취는 분수가 도치 못흔 어둡컴컴흔 데서 일을 후오닛가.

현대어 풀이

원체 점잖으신 양반댁에서 하는 일은 처소까지도 치마 꼬트머리 흰하게 열어젖힌 데서 하지 않고 콕 막혀 광선이 비치는 풍수가 좋지 못한 어두컴컴한 데서 일을 합니까.

출처 1921 동아일보 9월 28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 근처를 뒤졌더니 여송연 췁트머리가 써러져 잇는대.

현대어 풀이

그 근처를 뒤졌더니 여송연 꼬트머리가 떨어져 잇는대.

66 문헌 용례

렬차도적이 잇섯는데 차안에 내여버리고 다라난 상자 쏘각과 양초 싯트머리로 발견이 되여 큰 소동을 이르켓스나 그 방법이 자못 교묘하야 렬차승무에 썩 정통한 자의 소위인 듯하다더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응 원문

열차 도적이 있었는데 차안에 내어 버리고 달아난 상자 조각과 양초 꼬트머리가 발견이 되어 큰 소동을 일으켰으나 그 방법이 자못 교묘하여 열차 승무에 썩 정통한 자의 소위인 듯하다더라.

66 문헌 용례

괴한은 한 집도 내노치 안코 모조리 기웃거리고 포구거리 남쪽 꼬트머리에 이르렀다.

현대어 풀이

괴한은 한 집도 내놓지 않고 모조리 기웃거리고 포구거리 남쪽 꼬트머리에 이르렀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꼬트머리의 보충 설명

‘꼬트머리’의 옛말인 ‘싯트머리’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싯트머리’는 현대어 ‘끝’으로 이어지는 ‘싯ㅌ’와 접미사 ‘-으머리’가 결합한 것인데, ‘-으머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싯ㅌ-’는 ‘*싯’이 중철 표기된 것이다. ‘끝’은 15세기부터 ‘글’으로 나타나 된소리가 된 ‘*싯’으로 변화하였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음 앞에서 ‘긋ㅌ’, ‘글ㅌ’, ‘싯ㅌ’와 같은 중철 표기에서 ‘ㅌ’이 드러났다. 20세기에 ‘싯트머리’가 나타난다. 된소리 표기가 ‘ㅌ’에서 ‘ㄷ’으로 바뀌어 ‘끝’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세기에 ‘끝’으로 나타나는데 ‘싯트머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어 20세기에 ‘꼬트머리’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 나타나는 ‘싯트머리’는 ‘끝’을 ‘싯’으로 적던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꼬트머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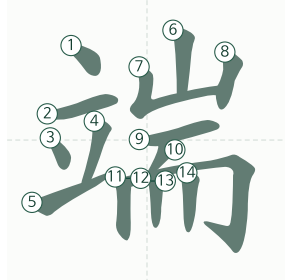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고트머리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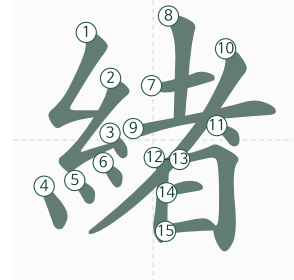
뜻·음 끝 단
총 14획 · 부수 立



hanja.wordrow.kr/한자/端/

緒

뜻·음 실마리 서
총 15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緒/